

어떤 주제의 책인가요?	소속을 선택하세요.	도서관명을 알려주세요.	이름을 알려주세요	추천하시는 책의 제목은 독 추천 책의 출판사는 어디?	추천 책의 저자는 누구인가?	책 속의 한 줄이나 감상평을 적어주세요.			
4월의 주제 <작은도서관,	경기북부지부	에다움 작은도서관	백정희	주홍 글자	유유문화사	너새니얼 호손	"그 글자는 그녀의 소명의 상징이었다. 그녀에게서 너무나 많은 도움을, 그리고 행동과 공감의 힘을 찾을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주홍 글자 A를 원래 의미로 해석하기를 거부했다. 그들은 헤스터 프린이 여성의 힘을 지닌 경이한 여자였으므로, 그 글자가 유능함(Able)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 제13장 헤스터의 또 다른 모습-		
4월의 주제 <작은도서관,	경기북부지부	일산외이시티 작은도서관	김경진	저 같은 아이도 공부할 수	만만책방	김주현	"저 같은 아이도 공부할 수 있을까요?" "나 같은 아이라 공부할 수 있다."		
4월의 주제 <작은도서관,	경상지부	팔판작은도서관	박미선	뜻밖의 우정	수오서재	김달남	우리가 접하는 노인은 아프거나 우울하거나 외롭고 쓸쓸한 모습이 대부분이다. 작가는 구체적인 노인의 삶을 이야기하며 그들의 모습에서 나의 노년의 모습을 겹쳐보며 인터뷰를 시작했 책 속에는 "나아들이 고학년 전문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노인들의 모습이 나온다. 일정에 넘치고 지성을 잃지 않기 위해 책과 영화를 가까이하며, 작고 더 작은 일에 감사하며 배움의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이다. 30대의 젊은 작가가 전하는 노년 탐구 에세이 '뜻밖의 우정'에는 '살아 있는 한 우리는 누구나 노인이 된다'는 자명한 사실을 따듯하고 당당한 문체로 풀어내고 있다.		
4월의 주제 <작은도서관,	서울동부지부	작은도서관 웃는책	조영아	그녀를 지키다	열린책들	장바티스트 앙드레아	특별한 후자의 딸과 영혼을 담은 조각가인 난쟁이와의 우정과 성장을 치열한 삶으로 보여주고 있다.		
4월의 주제 <작은도서관,	울산경주지부	세린작은도서관	김숙진	프로젝트 헤일메리	알에이치코리아	앤디 위어	계산은 과정임, 기억은 저장임, 생각은 생각임.		
4월의 주제 <작은도서관,	충청지부	내보물1호도서관	백영숙	할매	창비	황석영	켜켜이 쌓인 600년의 세월과 그 속에서 얽힌 자연과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책입니다		
4월의 주제 <작은도서관,	충청지부	푸른작은도서관	주소경	프로젝트헤일메리	알에이치코리아	앤디 위어	우와, 다우세티계의 우주선에 앉아서, 발급 만만 지능이 있는 외계인들이 우리의 대화를 이어가 주기만 시다라고 하는데... 지루하다니. 인간에게는 비정상적인 것을 받아들여 정상적인 것으로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경기남부지부	고산센트레빌작은도서관	장은진	아몬드, 줘디할머니	다들링, 문학동네	손원평, 박완서	아낌없이 사랑으로 곱잡 없는 내면을 선물해 주신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감사한다. 성장기 속에서 받는 응원과 사랑, 무조건적인 지지가 잠시 드물고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다. 그것이란 인간에게 얼마나 큰 무기가 되는지, 세상을 겁 없이 다양하게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는지... 아몬드 중-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경기북부지부	고양 작은도서관	김나현	가난한 아이들은 어떻게 이	올베게	강지나	모든 책임을 사회적 구조에만 돌리는것은 공평하지 않다.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경기북부지부	작은도서관과다락	김은아	소풍을 빌어드립니다	팔파미디어	문하연	아무렇지도 않게 평범한 책 살고 있지만 각 기 다른 상처와 아픔, 그리고 기억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이웃이 되고, 서로를 보듬고 이해하며 거듭나고 있는 것, 서로 감동을 주고, 고경관념을 부수며 새로운 것을 시도하며 예술이라 부르는 그 몸짓들에 위로와 잔잔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아플려 사는 게 진정한 예술 아니겠나고'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경기북부지부	작은도서관다락	고윤희	프로젝트헤일메리	RH코리아	앤디위어	우주에 혼자 남겨진 한 남자 그리고 마선의 작가 둘을 연관 지으니 이번에는 우주선에서 혼자 살아남기인가 하고 줄거리를 예상해 보았다. 그런데 뽀글 생각지도 못했던 진짜 SF 풀이였다. 너무 흥미진진했다. 꼭 읽어보길~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대구지부	책마실	이정은	엄마만남은 김미자	사계절	김종미	뜻해도 괜찮아 그냥 여기 이렇게만 있어줘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서울동부지부	놀자도서관	김재원	안녕이라 그랬어	문학동네	김애란	현실과 맞닿아 있는 이야기들이 나를 추켜 퍼며 묵직한 울림을 주었다.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서울동부지부	슈필라움도서관	정명숙	흔모노	(주)창비	성해나	삼십년 박수 인생에 이한 순간이 있었단가, 누구를 위해 살을 풀고 명을 버는 것은 이제 중요치 않다. 명예도, 젊음도, 시기도, 반쪽도, 진짜와 가짜까지도.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서울동부지부	마차산아래작은도서관놀자	박하나	소년이 온다	창비	한강	인간다움을 지켜낸 분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갖습니다.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서울동부지부	마차산아래작은도서관놀자	정민경	문스터차일드	사계절	이재문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차별없는 세상이길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서울동부지부	마차산아래작은도서관놀자	정이은	모든 것이 사라진 그날	우리동네 책공장	니콜라 데이비스	속상하고 안타까워서 눈물이 났어요.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울산경주지부	극동푸른작은도서관	이진영	나를아프게 한 말들이 모두	모티브	이근호	우리는 타인보다 자신을 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정작 자신보다 그들의 의견에 더 신경 쓴다.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울산경주지부	작은어우숲도서관	김소은	나에게 괜찮다고 물어본	스물빅라이프	황광성	나를 잃어가며 지켜야 할 관계는 없다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울산경주지부	하랑작은도서관	배수경	티슈, 손내일고 있는 하얀	책이사아린이	이재순 동시 . 최유정 그림	동시 한 편에. 해설이 있는 책이다. 나의 느낌 너의 느낌 작가의 느낌을 동시에 볼 수 있어 좋다,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울산경주지부	햇살작은도서관	박진숙	나나울리에게	문학동네	루지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서로를 아끼고 이해하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느끼게 되었네요.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인천지부	풍세말도서관	국향미	나무 같은 사람이 되고 싶	(아델리에 북스	리즈 마빈	내면의 힘을 기르는 데 집중하면 나무를 떠받치는 줄기처럼 일상의 무게를 견딜 단단한 중심이 생긴다.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인천지부	풍세말도서관	노윤주	1.5도 이코노믹 스타일	착한책가게	김병연	경제를 살리겠다고 제대로 된 기후대응을 계속 미루다 보면 행동하지 않는 '방관비용'이 기후 위기 대처 비용보다 높아지게 될 것이다.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인천지부	풍세말도서관	이순미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	아카넷	프리드리히 니체	낙타와 사자의 정신을 넘어 아이의 정신으로 살라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충청지부	초롱이네도서관	김수정	아프다고 말해주면 좋겠어	어크로스	김정호	P91 동물이 살 만한 곳이라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동물에게 자리를 내주는 세상이라면 낯선 타인에게도 기꺼이 손을 내밀 것이다. 동물을 대하는 마음과 사람을 대하는 마음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충청지부	초롱이네도서관	김수정	아프다고 말해주면 좋겠어	어크로스	김정호	청주동물원 수의사로 일하고 있는 저자가 동물을 돌보며 써내려간 기록인데, 동물을 사육의 대상이 아닌 복지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의 시선이 다정하게 느껴진다. 인간사에 국한되어 생각하던 나에게 동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 모두가 조금 더 편안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꿔본다.		